

# 광주FC 이정호 감독 “내 동기 안정환 같은 선수 지도하고 싶다”

대학 동기 안정환 보며 “저 친구 넘을 수 없을 것 생각”

“제 축구 무조건적 옳은 것 아냐...축구로 설득해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 직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안정환 같은 선수를 지도해보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 감독은 대한축구협회(KFA) 기술리포트&매거진 온사이드(ONSIDE) 2월호 인터뷰에서 “대학 시절부터 지도자를 꿈꿨다”며 “제가 (안)정환이와 아주대 동기인데 그때 정환이를 보면서 생각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 친구는 넘을 수 없겠구나. 타고난 재능은 저런 거구나. 그때 ‘저런 선수를 지도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쪽으로 재능이 없진 않았던 것 같다. 초중고 시절 모두 주장을 맡았는데 중3 때 처음으로 훈련 프로그램이란 걸 짜 봤다. 감독님이 마음대로 만들어보라고 하셨다”고 회고했다.

이 감독은 “아직도 기억한다. 처음 10분 동안 운동장 뛰면서 워밍업 하기, 다음엔 리프팅하면서 왔다갔다 움직이기, 드리블로 하프 라인까지 갔다 오기, 서로 해킹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기, 마지막으로 4명으로 한 조를 짜서 지그재그로 패스를 주고받기였다”며 “게임 형식처럼 진행했는데 정말 재미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때 선수가 잘 하고 있는 점을 먼저 이야기하면 마음을 열더라”라며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을 언급하고 ‘이것만 채워주면 출전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라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감독은 지난 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2라운드에서 0-2로 진 뒤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이 감독은 “아쉬움보다 분하다. 저렇게 축구하는 팀에게 졌다는 게 제일 분하다. 선수들도 그럴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축구가 발전하려면 광주 같은 색깔을 가진 팀이 결과도 가져와야 한다. 남들이 안 가는 패배”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감독은 “선수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선수를 불러 감독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시켜야 한

다. 그때 선수가 잘 하고 있는 점을 먼저 이야기하면 마음을 열더라”라며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을 언급하고 ‘이것만 채워주면 출전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라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감독은 지난 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2라운드에서 0-2로 진 뒤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이 감독은 “아쉬움보다 분하다. 저렇게 축구하는 팀에게 졌다는 게 제일 분하다. 선수들도 그럴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축구가 발전하려면 광주 같은 색깔을 가진 팀이 결과도 가져와야 한다. 남들이 안 가는 패배”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감독은 “선수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선수를 불러 감독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시켜야 한



뉴스시



## 장흥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열린다

올해는 7월3일~9일까지 장흥실내체육관서 개최

장흥군과 대한씨름협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장흥서 개최하기로 했다.

6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날 장흥군청 상강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황경서 대한씨름협회장, 왕윤재 장흥군의회 의장, 정성인 장흥군체육회장, 김천환 군 씨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통해 ‘어머니 품 장흥’을 전국에 알리고 민속 씨름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2023년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장흥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초·중·고·대·여성·남자 일반부 등 6개 부에 선수, 임원 등 총 12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씨름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전국 방송을 통해 정남진 장흥을 알리고 지역민의 소득향상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1·2라운드 관중, 코로나 전보다 11% 증가

K리그1 12경기 평균관중 1만3572명...K리그2, 19% 증가한 3824명



지난 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프로축구 K리그1 2라운드 광주FC와 FC서울의 경기를 보고자 모인 관중들로 경기장이 가득 차 있다.

프로축구 K리그가 2023시즌 흥행 바람을 일으키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7일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하나원큐 K리그1 2023 1·2라운드 총 12경기에서 총 16만

2865명이 입장, 평균 관중 1만3572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1만2196명과 비교해 11.3% 증가한 수치다.

역대 1·2라운드 최다 관중은 2017년의 16만4434명이다.

당시에는 유료와 무료 관중을 모두 집계한 수치고, 2018년부터 유료만 집계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 시즌 초반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된다.

지난달 25일 울산 현대-전북 현대의 공식 개막전에선 2만8039명이 입장해 코로나19 이후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다.

현대기아차, 유럽과 황의조(서울)의 복귀, 승격팀 광주FC-대전 하나시티즌의 개막 돌풍 등이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또 지난해 연말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이 K리그 붐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K리그2(2부)의 관중 증가 폭은 더 가파르다. 2라운드까지 경기당 3824명이 입장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3210명에 비해 19% 늘었다.

뉴스시

## 국가대표 출신 이승준, 조선대 농구부 코치 부임

강양현 감독과 인연...“외국 활동 경험 후배들에게 알려주고파”

농구 국가대표 출신 이승준이 조선대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친다.

조선대는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이승준이 농부부 코치로 임명돼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코치는 강양현 조선대 농부부 감독과 인연을 잊지 않기 위해 코치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코치는 “3x3 국가대표로 뛴 때 강 감독의 지도를 받았다”며 “어렸을 때부터 교육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강 감독께서 꿈을 이룰 수 있게 이끌어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경험을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후배들이 나의 지도로 발전하고 나 또한 후배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아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설레인다”고 이야기했다.

이승준은 울산 모비스 피버스, 서울 삼성 썬더스, 원주 동부 프로미 등에서 활약했다. 국가대표로도 선발돼 2010 광주아시아경기대회 은메달, 2012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2013 국제농구연맹(FIBA) 마닐라 아시아남자농



조선대 농부부 이승준 코치. (사진=조선대학교 제공)

구선수권대회 3위로 이끌었다.

현역 은퇴 후에도 3x3 선수로 뛰고 있으며 TV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 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장 하고 있다.

## KBO, 이달 시범경기 개시

시간 변경...WBC 일정 고려

25일·27일, 야간 경기 적응력 향상 위한 변경

일자	구장	원정	홈	시간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3.13(월)~14(화)	사직	두산	롯데	13:00	14:00	TV 중계 편성 (WBC 타 조 경기 시간과 중복)
	대구	SSG	삼성			
	창원	LG	NC			
	고척	KT	키움			
	대전	KIA	한화			
3.16(목)	사직	SSG	롯데	13:00	18:00	야간 경기 적응력 향상
	대구	LG	삼성			
	창원	두산	NC			
	고척	KIA	키움			
3.25(토)	사직	한화	롯데	13:00	18:00	야간 경기 적응력 향상
	광주	NC	KIA			
3.27(일)	사직	KIA	롯데	13:00	18:00	야간 경기 적응력 향상
	대구	한화	삼성			

른 조이다.

아울러 25일 사직(한화)이글스-롯데 자이언츠), 광주(KIA-타이거즈) 경기는 야간 경기 적응력 향상을 위해 경기 시작 시간을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했다. 27일 사직(KIA-롯데), 대구(한화-삼성 라이온즈) 경기도

같은 이유로 경기 시간을 미뤘다.

시범경기는 13일 시작해 28일까지 이어진다. 각 팀이 14경기씩 참가해 모두 70경기가 열린다.

시범경기는 연장전과 더블헤더를 실시하지 않는다. 취소 경기는 재편성하지 않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시범경기 일부의 경기 개시 시간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오후 1시로 예정했던 13~14일, 16일 모든 경기는 경기 시작 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했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 TV 중계 편성과 시범경기 시작 시간이 중복된 데 따

## ‘20세 이하’ 록 집은 클린스만...U20 유망주 깜짝 선발?

내일 첫 기자회견 예정...정몽규에 ‘20세 이하’ 언급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임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될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이 20세 이하 선수들에게 관심을 나타내면서 유망주 기용도 점쳐지고 있다.

클린스만 선임 감독은 오는 8일 이른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9일 오후 공식 취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후 K리그 경기 등을 관전한 뒤 오는 24일 콜롬비아, 28일 우루과이와 갖는 평가전에 출전할 선수들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이 20세 이하 유망주를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주목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최

근 인터뷰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이 20세 이하 대표팀과 성인대표팀 간 연계를 직접 언급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클린스만 감독이 전격적으로 20세 안팎 유망주들을 대표팀에 승선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아시안컵이 열리고 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조별리그 2연승을 달리며 8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대회는 오는 18일 결승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산술적으로는 20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의 이달 A매치 출전이 가능하다.

이번 20세 이하 대표팀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이목을 끌만한 한 선수들이 있다. 요르단전에



서 중앙선을 넘어 단독 드리블로 환상골을 넣은 강성진(FC서울)을 비롯해 김용학(포르티모넨세), 성진영(고려대), 배준호(대전하나시티즌), 이영준(김천 상무) 등이 돋보인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 동시에 어린 선수들을 기용해 기존 대표팀에 변화를 꾀할지 주목된다.

뉴스시